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대학생활 만족도와의 융합 연구

허남숙¹, 이유희^{2*}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²대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A Systematic Analysis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and a Convergence Relationship with College Life Satisfaction

Nam-Suk Heo¹, Yu-Hee Lee^{2*}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Science University

요 약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부분을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에 소재한 치위생과 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척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융합연구 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척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로와 좌절, 우울, 분노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는 심각한 경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생활의 스트레스가 부적응과 불만족을 가중 시킬 것을 예상 할 때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 연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치위생과에 맞는 스트레스 반응 도구의 개발과 분석을 제안한다.

주제어 : 융합, 치위생과, 스트레스, 만족도, 체계적 분석

Abstrac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299 dental students and students in Gyeongnam area studied stress, stress response scale,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systematic analysis according to the scale of stress response showed high values in fatigue, frustration, depression and anger. In addition, satisfaction with stress experienced negatively. Stress can give you a negative impact that can lead to serious illness. A systematic analysis using the stress response scale is expected to help reduce stress and improve college life satisfaction when the stress of college life is expected to increase maladjustment and dissatisfaction. We suggest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a stress response tool suitable for dental hygienists.

Key Words : Convergence, Dental Hygiene Department, Satisfaction, Stress, Systematic Analysis

1. 서론

대학 시기는 정체감, 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 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발달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1].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그들의 정신건강과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 특히 치위생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치과위생사 의료 기사 국가시험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에 합격해야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Masan University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Yu-Hee Lee(eu1983@naver.co.kr)

Received May 25, 2018

Revised July 2, 2018

Accepted July 20, 2018

Published July 28, 2018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뿐 아니라 치위생전공 이론 학습과 임상실습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스트레스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3,4].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반응으로 나타나는 긴장상태를 말하며, 정신 질환의 원인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5].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감의 감소, 성적 저하 등이 발생하며 나아가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6-9]. 국민건강통계에서 조사한 스트레스인식율과 우울증상 경험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교육부는 대학생 자살자수가 2006년 191명에서 2008년 332명으로 증가하였고 매년 평균 230명의 대학생 자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10]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확립되는 대학 시기의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과 스트레스에 관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심각성은 입증되어 왔지만 [3,9], 이는 스트레스인자, 스트레스 반응,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및 생물학적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11,12].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부분을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활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및 통계

2.1 연구조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남지역에 소재한 치위생과 2,3학년 299명을 조사 하였고, 연구대상자 수 산출근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크기는 0.5,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95%로 하여 실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 중 1학년은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수치화하기에 미흡하다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 방법으로 하였다.

2.2 연구조사 방법

주요 변수인 스트레스는 유 등[13]이 개발한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10문항, 환경 스트레스 9문항, 개인 간 스트레스 5문항, 개인 내 스트레스 15문항 총 39문항을 대학차원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이용하였고, 스트레스 반응척도는 고 등[11]이 개발한 피로 5문항, 좌절 7문항, 신체화 3문항, 분노 6문항, 우울 8문항, 긴장 6문항, 공격성 4문항 총 3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만족도는 김과 하[14]가 개발한 33개의 문항을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포점수는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학차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 척도 및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하였으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ver 22.0(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은 2학년 154명(49.4%), 3학년 158명(50.6%)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아주 안 좋다'가 7명(2.2%), '안 좋다' 76명(24.4%), '보통' 113명(36.2%), '좋다' 66명(21.2%), '아주 좋다' 50명(16.0%)로 나타났다. 본인인지 대인관계는 '아주 안 좋다'가 2명(0.6%), '안 좋다' 84명(26.9%), '보통' 118명(37.8%), '좋다' 79명(25.3%), '아주 좋다' 29명(9.3%)로 나타났다. 지원 동기는 빈도분석결과 취업률 169명(54.2%)이 가장 높았고, 주변의 권유 78명(25.0%), 성적 43명(13.8%), 적성 17명(5.4%), 기타 5명(1.6%)순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아주 만족하지 않는다'가 12명(3.8%), '만족하지 않는다' 78명(25.0%), '보통' 166명(53.2%), '만족한다' 40명(12.8%), '아주 만족한다' 16명(5.1%)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Group	N(%)
Grade	2	154(49.4)
	3	158(50.6)
Health condition	very not good	7(2.2)
	not good	76(24.4)
	normal	113(36.2)
	good	66(21.2)
	very good	50(16.0)
Relationship	very not good	2(0.6)
	not good	84(26.9)
	normal	118(37.8)
	good	79(25.3)
	very good	29(9.3)
Motivation of choose the department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43(13.8)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78(25.0)
	High employment rate	169(54.2)
	Aptitude	17(5.4)
	Etc.	5(1.6)
Major satisfaction	very not good	12(3.8)
	not good	78(25.0)
	normal	166(53.2)
	good	40(12.8)
	very good	16(5.1)

3.2 대상자의 대학차원의 스트레스

대상자의 대학차원의 스트레스를 학업, 환경, 개인 간, 개인 내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업 스트레스가 3.70±0.60로 가장 높았고, 개인 간 스트레스 3.15±0.73, 환경 스트레스 3.13±0.65, 개인 내 스트레스 2.86±0.65 순이었다. 학업 스트레스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험 4.18±0.82, 학업 4.04±0.78, 학업성적 3.92±0.85, 과제 양 3.89±0.83, 과제 발표 3.89±0.86 순으로 높았다. 환경 스트레스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통학 3.60±1.11, 물가상승 3.33±1.01, 학업 및 생활환경 3.28±0.87, 경제적 문제 3.27±1.01 순으로 높았다. 개인 간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과거에 내린 결정 항목에서 3.33±0.91, 인간관계 3.29±0.89 순으로 높았다. 개인 간 스트레스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내면적 갈등 3.15±0.94, 삶의 의미 3.12±0.95, 월경 3.10±1.07 자아 존중감 3.00±0.93 순으로 높았다.

Table 2. College-based stress of the subject

Variables	Group	Mean±SD	
Academic	Course requirements	4.04±0.78	
	Physical appearance	3.35±0.92	
	Academic ranking	3.92±0.85	
	Class preparation	3.37±0.88	
	Examination	4.18±0.82	
	Amount of task	3.89±0.83	
	Complexity of material to be learned	3.75±0.88	
	Classroom presentations	3.89±0.86	
	Increased class workload	3.57±0.85	
	Classmates competition	3.00±0.90	
		3.70±0.60	
	Environ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aculty	2.80±0.84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amily	2.53±1.01
Financial difficulties		3.27±1.01	
Change in living environment		3.17±0.87	
Unsatisfactory living condition		3.28±0.87	
Not enough money for food, housing, etc		3.26±1.04	
Rising prices of common goods		3.33±1.01	
commute to school		3.60±1.11	
Vacations		2.96±1.07	
		3.13±0.65	
Interpersonal	Regrets over past decisions	3.33±0.9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29±0.89	
	Gossip	3.07±0.97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3.00±0.93	
	Trouble making decision	3.07±0.84	
		3.15±0.73	
Intrapersonal	Religion	1.90±0.99	
	Low independent capability	2.81±1.00	
	Dating	2.75±1.03	
	Self-esteem	3.00±0.93	
	Self-identity	2.96±0.95	
	Meaning of life	3.12±0.95	
	Hypochondriacal phenomenon	2.94±0.96	
	Being lonely	2.95±0.97	
	Menstrual (period) problems	3.10±1.07	
	Inner conflicts	3.15±0.94	
	Health problems	2.91±0.92	
	Personal achievement	3.08±0.89	
	One's own studies	2.82±0.81	
	Sexual concern	2.53±0.88	
Communication	2.87±0.82		
	2.86±0.65		
Total		3.17±0.53	

3.3 대상자의 스트레스 반응 척도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반응척도별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피로가 3.56±0.68로 가장 높았고, 좌절 3.35±0.85, 우울 3.22±0.83, 분노 3.17±0.87, 긴장 3.17±0.87, 신체화 3.12±0.94, 공격성 2.45±1.03 순이었다.

Table 3. Stress response scale

Variables	Mean±SD
Fatigue	3.56±0.68
Frustration	3.35±0.85
Somatization	3.12±0.94
Anger	3.17±0.87
Depression	3.22±0.83
Tension	3.17±0.87
Aggression	2.45±1.03
Total	3.18±0.70

3.4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개의 스트레스 하위영역과 7개의 스트레스 반응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개인 내 스트레스와 개인 간 스트레스는 .68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Stress Response Scale

Classific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Academic	1										
Environmental	.544**	1									
Interpersonal	.480**	.584**	1								
Intrapersonal	.404**	.623**	.686**	1							
Fatigue	.571**	.456**	.458**	.455**	1						
Frustration	.447**	.444**	.427**	.505**	.677**	1					
Somatization	.298**	.299**	.303**	.412**	.498**	.633**	1				
Anger	.435**	.435**	.412**	.441**	.579**	.766**	.628**	1			
Depression	.427**	.432**	.434**	.486**	.642**	.743**	.580**	.801**	1		
Tension	.367**	.380**	.411**	.463**	.543**	.635**	.560**	.747**	.777**	1	
Aggression	.207**	.290**	.258**	.317**	.310**	.440**	.349**	.535**	.519**	.568**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3.5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만족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에 따른 만족도는 Table 5와 같다. 개인 내 스트레스와 진로 만족도와의 비교 결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의 척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유의한 관련은 없었다.

Table 5. College-based stress and satisfaction

Classification	Major satisfaction	p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satisfaction	p	Academic satisfaction	p	Department satisfaction	p	College satisfaction	p	Career satisfaction	p	
													Academic
	1	3.47±0.58	3.49±0.70	3.25±0.68	3.59±0.64	3.13±0.61	2.69±0.67						
Environmental	0	3.50±0.63	3.53±0.74	3.23±0.68	3.59±0.66	3.09±0.62	2.56±0.63	0.369	0.368	0.820	0.920	0.507	0.026
	1	3.44±0.57	3.46±0.70	3.25±0.67	3.59±0.65	3.14±0.59	2.74±0.68						
Interpersonal	0	3.52±0.64	3.52±0.79	3.17±0.81	3.62±0.68	3.07±0.62	2.59±0.63	0.373	0.635	0.348	0.624	0.375	0.172
	1	3.45±0.57	3.47±0.69	3.26±0.62	3.57±0.64	3.14±0.59	2.71±0.68						
Intrapersonal	0	3.47±0.60	3.47±0.77	3.22±0.68	3.63±0.66	3.13±0.61	2.57±0.65	0.826	0.685	0.653	0.241	0.848	0.004
	1	3.46±0.59	3.50±0.65	3.26±0.67	3.54±0.64	3.11±0.58	2.79±0.67						

3.6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2학년 일수록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1.94(1.08~3.45),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2.10(1.09~4.03). 개인 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 척도 중 긴장과 공격성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Table 6. The effect on the subject's satisfaction

Factors	B	SE	OR(95% CI)	p*
Grade(3)	0.66	0.30	1.94(1.08~3.45)	.026
Health condition	0.74	0.33	2.10(1.09~4.03)	.026
Relationship	-0.63	0.36	0.53(0.26~1.08)	.082
Major satisfaction	0.47	0.34	0.53(0.26~1.08)	.165
Intrapersonal stress	0.44	0.30	1.55(0.86~2.78)	.144

Fatigue	0.17	0.31	1.18(0.65~2.15)	.585
Frustration	-0.05	0.31	0.95(0.52~1.75)	.870
Somatization	0.21	0.21	1.23(0.82~1.84)	.324
Anger	-0.41	0.34	0.66(0.34~1.28)	.218
Depression	0.25	0.33	1.29(0.67~2.48)	.449
Tension	-0.63	0.28	0.54(0.31~0.93)	.027
Aggression	0.44	0.18	1.55(1.09~3.45)	.016

F=3.29, Nagelkerke R²=0.129, p<0.001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4. 고찰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가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나아가 자존감까지 떨어뜨리고 심각한 경우 질병 내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다[6-9]. 대학생들이 시작되는 시기는 정체감 확립과 성인기로의 준비를 위해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15]. 우리나라 대학생의 46%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할 만큼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심각하며[16], 그 중 보건계열 치위생과 학생들이 갖는 스트레스는 타 과에 비하여 과도한 학사일정과 국가고시, 진로 등으로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3,17]. 스트레스는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대학차원의 스트레스는 총 3.17±0.53점이었다. 간호학과 학생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정 등[19]의 연구결과 1.22±0.55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던 반면 개인 내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다.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다른 대학생에 비하여 치과위생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국시를 치러야 하는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반응척도별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피로가 3.56±0.68로 가장 높았고, 좌절, 우울, 분노, 긴장, 신체화, 공격성 순이었다.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대

상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이 등[20]의 연구에서는 좌절, 우울, 긴장, 분노, 피로, 신체화, 공격성 순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반응 척도와 낮은 변수는 일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1,3,6]. 높은 수치의 반응척도 항목인 피로와 좌절, 우울, 분노는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야기 시키고 대학생활의 불만족을 더욱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완화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에 따른 만족도 비교 에서는 개인 내 스트레스와 진로 만족도와의 비교 결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 등[21]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주장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가지는 진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학년이 2학년일 때 만족도가 낮았다 1.94(1.08~3.45). 2학년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는 학교생활 적응의 안정도가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2.10(1.09~4.03). 건강상태가 대학생활의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 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 척도 중 긴장과 공격성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반응 척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치위생과 대학생의 스트레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후속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의 매개효과, 치위생과에 맞는 스트레스 척도의 등의 융합적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어렵고 스트레스 완화할 수 있는 중재변수에 대한 관계를 알 수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생과 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 연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J. Y. Park. (2011). *Stress, Stress re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es. Graduate School of Seonam University, Namwon.
- [2] M. S. Chu, Y. R. Lee & S. H. Kim. (2012). Nursing students' stress level, source and coping.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19(2), 195-203. UCI : <http://uci.or.kr/G704-SER000009889.2012.19.2.001>
- [3] J. H. Lee & E. S. Jeon. (2009). A study on causes of stress experienced by party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uring clinical training. *J Dent Hyg Sci*, 9, 137-43.
- [4] G. R. Lee. (2014).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life-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4(5), 659-65.
- [5] H. Selye. (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 hill.
- [6] Magnussen L & Amundson. MJ. (2003).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and Health Science*, 5, 261-7.
- [7] E. H. Jung. (2017. 5. 7). The first place stressing t h e opening of uni v ersity students is homework'. JoongAngllbo[Online]. <http://news.joins.com/article/21450826>
- [8] G. S. Han. (2011).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of oral malodor and smoking, drinking, oral health behavior. *J Dent Hyg Sci*, 11, 213-20.
- [9] S. Y. Kim.(2016).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6(4), 115-122. DOI : 10.22156/cs4smb.2016.6.4.115
- [10] *Ministry of Basic Education*. (2011, April 1). <http://std.kedi.re.kr>.
- [11] K. B. Koh, J. K. Park & C. H. Kim. (2000). Development of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9(4), 707- 719.
- [12] J. K. Park, S. J. Lim.(2017). Converged Study on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tress with clinical practi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189-197. DOI : 10.15207/JKCS.2017.8.12.189
- [13] J. S. Yoo, S. J. Chang, E. K. Chio & J. W. Park. (2008).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8(3), 410-419.
- [14]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 of Counselling*, 1(1), 7-20.
- [15] H. J. Kang & B. C. Yu.(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mental health and life stress in dental hygiene freshman. *J Korean Soc Dent Hyg*, 14(4), 495-502.
- [16] Retrieved February 19, 2013, http://www.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00831005100353&from=search.
- [17] M. J. Jun, E. K. Noh.(2018).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9(4),433-42. DOI : 10.15207/JKCS.2018.9.4.433
- [18] S. Y. Min & S. K. Chaung.(2006). Self effica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5(3), 299-307.
- [19] H. Y. Jung & J. O. Jeong. (2013).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and Mental-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4), 191-204.
- [20] S. M. Lee. (2011). Effect of perfectionism on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23(3), 717-738.
- [21] H. J. Lee.(2016).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b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75-83. DOI : 10.15207/JKCS.2016.7.4.075

허 남 숙(Nam-Suk Heo)

[정회원]



- 1999년 3월 ~ 현재 :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융합 연구, 스트레스척도, 치위생과
- E-Mail : fungi@masan.an.kr

이 유 희(Yu-Hee Lee)

[정회원]



- 2014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8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 관심분야 : 융합 연구, 스트레스, 만족도
- E-Mail : eu1983@naver.com